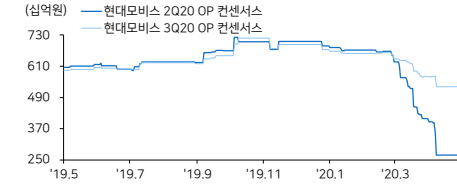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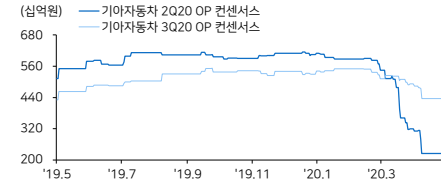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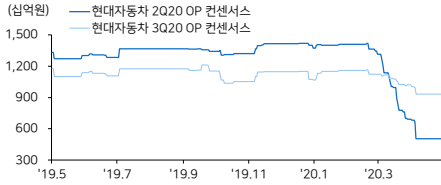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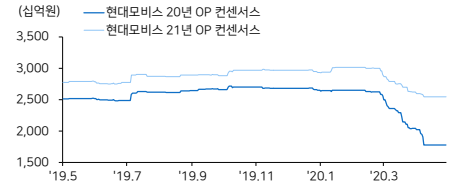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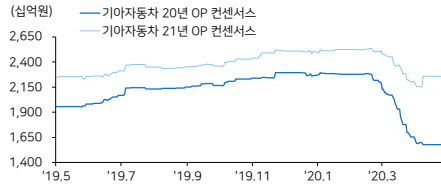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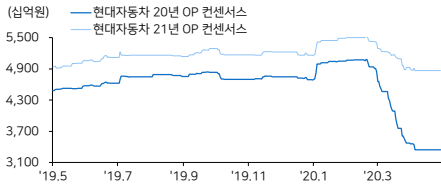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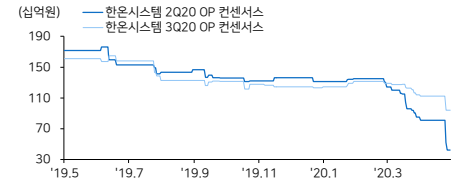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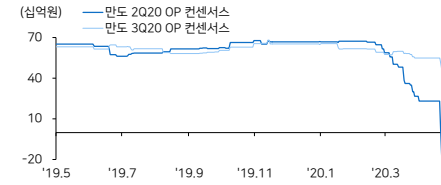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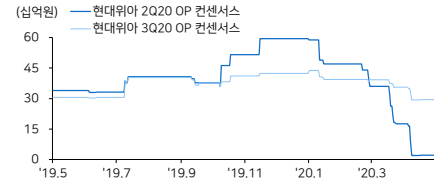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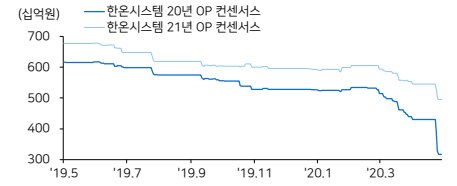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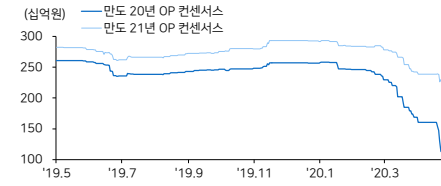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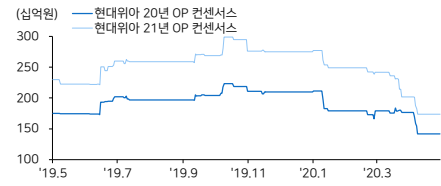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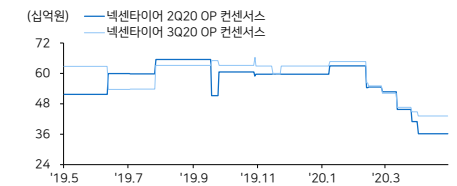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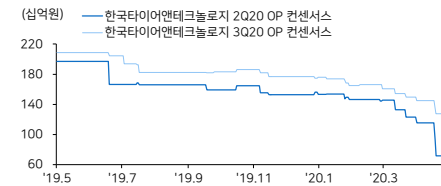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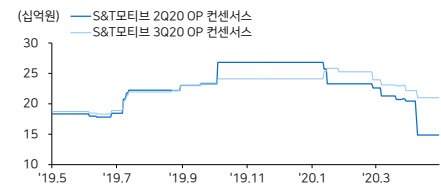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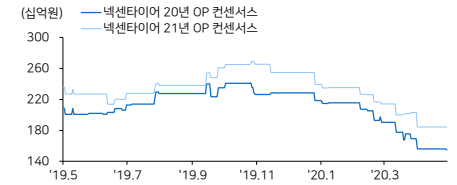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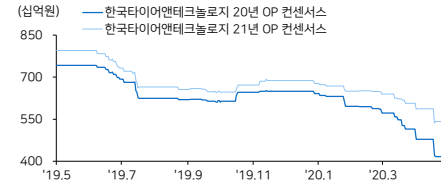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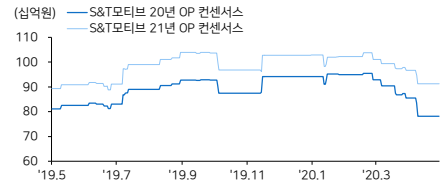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신형 베르나 인도 출시...커넥티드 기술 대거 탑재 (더그투)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신형 베르나를 출시.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인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스피리트 뉴 베르나'라는 이름으로 소형 SUV인 셀토스 구매 고객에게 집차자 차를 타용해주는 서비스를 도입.
<https://bit.ly/2zXymQ0>

"인도 공돌이는"기아차...택승 서비스로 코로나 넘긴다 (디지털타임스)

기아자동차가 코로나19로 인도 시장 영업이 정체 중인 가운데 온라인 택승 서비스로 위기 극복에 나선.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최근 인도에서 소형 SUV인 셀토스 구매 고객에게 집차자 차를 타용해주는 서비스를 도입.
<https://bit.ly/3bPHUJX>

충전요금 향후 2년 간 두 배 이상 상승...전기차 승부처는 '전비' (전자신문)

그동안 절반 넘게 할인돼 왔던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오는 7월부터 향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을. 이 같은 이유에서 전기차 주행거리 성능만큼이나 일종의 전기차 연비효율인 전비(전력 1kWh당 주행거리)가 주목받고 있음.
<https://bit.ly/2ZxHk7sy>

중, 타도 선행인"1722조원 장전해 자율주행·AI 등 최첨단 기술 육성 (IT조선)

중국이 자율주행과 무선통신, 사물인터넷(IoT) 등 최첨단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공지능(AI) 개발을 통해 미국을 넘어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 함. 이를 위해 6년간 1억4000만달러(1722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
<https://bit.ly/2TRJrpy>

기아차, 해외 시장 위기 극복 총력 (오토타임즈)

기아자동차가 해외 자동차 시장 위축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지판매, 수출, 생산 등 전 부문에 걸쳐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고 21일 밝혔. 먼저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임.
<https://bit.ly/3CzCvB0>

싼타페 제동장치 결함...현대차·BMW 등 126개 차종 55만대 리콜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CA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바이크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6개 차종 54만9천931대에 걸쳐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https://bit.ly/3Csk7KF>

"배기가스 조작안건 문제 아냐"...한국인 속인 벤츠의 두얼굴 (머니투데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5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림. 한국서 전무한 고속성장을 이룬 이면에 '딜러사' '뒤편' 논란이 존재. 일부에선 한국 딜러사들의 수익을 가로챈 것이라는 얘기가 들림.
<https://bit.ly/3gdJAAk>

S&P, 토요타·혼다 신용등급 한 단계씩 하향 조정 (M오토데일리)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20일 일본 토요타의 장기기업 신용등급을 기존 '더블 A 마이너스'에서 '싱글 A 플러스'로, 혼다를 '싱글 A'에서 '싱글 A 마이너스'로 각각 한 단계씩 낮췄다고 발표.
<https://bit.ly/36n4Cb6>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